

남북 베트남 통일을 위한 베트남 문학의 노력*

보 티 쉐언 하(Bo Ti Ssueon Ha)**

차 례

1. 들어가며
2. 차가운 물속
3. 성벽
4.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노인
5. 문예역량 출석부
6. 마무리

[한국어 초록]

이 글은 1975년에 이룩된 남북 베트남 통일과 통일에 기여한 문학적인 노력을 연구한 논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전쟁은 오래 전에 끝났고, 통일된 지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베트남인들은 전쟁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건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건 같은 현상이다. 이 때의 문학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베트남 민족혼을 통일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 글은 나의 소설집인 『차가운 물 속』, 『성벽』,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노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4일 The-K 경주호텔(경주시)에서 열린 베트남작가협회와 동리목월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2018 한·베 문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이다.

** Vo Thi Xuan Ha : 소설가, camky204@gmail.com

인』의 사례를 가지고 서술하였다. 이 작품들은 1965년에서 1975년까지의 남북 베트남 구국항미전쟁을 반영했고, 애국심과 혁명적 영웅주의를 고취시키는 작업에 치중하였다. 구국항미전쟁의 전후 시대와 도이머이 시대의 문학 작품들은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사상을 구현하면서 베트남 현대문학의 발전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었으며, 베트남 사람들의 단결력을 보여주었으며, 시대의 숨결을 크게 울려 퍼지게 하였다. 그러나 도이머이 시대 이후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흥행과 작품성에 성공한 작품도 많지만, 부실하고 허황한 작품들도 양산되어 문학이 많이 혼란해지고 있다. 작품의 성공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독자이니, 주제, 창작 방법, 작가 윤리 등에서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들 써야 할 것이다.

주제어: 남북 베트남, 통일 전쟁, 트라우마, 통일문학, 도이머이(DoiMoi)

1. 들어가며

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 특히 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전쟁은 이미 저 멀리 물러난 것 같지만, 전쟁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참전했건 간접적으로 겪었던, 심지어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도 계속 남아있다. 또 그 트라우마가 주변을 배회하며, 불안초조, 고통과 곤란, 심혼을 들들볶는 운명으로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문학은 민족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어떤 시기에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남북통일 과업을 위한 문학적 노력은 1975년 4월 30일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었다. 실로 오늘날까지 남북이 하나로 통일을 이룬지 43년이 흘렀지만, 문학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며, 지리적, 역사적 통일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민족의 혼을 통일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 1965년에서 1975년까지 남북 베트남 전체의 문학은 구국항미전쟁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집중했다. 애국심과 혁명적 영웅주의를 고취시켰다.(사이공 정권에 복무했던 작가들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이 시기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새로운 표현과 신조를 구현하면서 베트남 현대문학의 새로운 발자국을 찍었다. 민족 전체의 출병을 체현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단결력을 보여 주었으며, 새 시대 민족의 위상을 개괄하고, 정치사상성을 강화하면서, 시대의 숨결을 크고 넓게 울려 퍼지게 했다.

이 글에서 나는 나의 세 작품 『차가운 물속』, 『성벽』,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겠다.

이 세 작품은 베트남 당대 산문문학의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남북통일 과업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전후 시대와 도이머이 시대를 다루고 있다.

2. 차가운 물속

소설은 내가 선택한 한 지역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남북이 갈린 북위 17도선 근방지역이다. 그곳은 내 고향이자 봉건왕조의 수도였던 후에다.

“도시 변두리, 홍강의 한 굽이에 위치한 곳으로, 갯벌 중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한 곳 중의 하나다. 응옥이라는 이름의 작은 시골마을이다. 마을 한쪽에는 전쟁 당시 미국이 만든 군사도로 로투언안 포구를 향해 달리는 포장도로가 깔려 있었다. 다른 한쪽은 그 날, 곧 무섭게 내달리기 직

전의 순한 모습을 흥강 물결이 감추고 있었다.”

이 시기는 통일 직후다. 모든 남부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무질서함 속에 많은 속박을 받았다. 그들은 새로운 정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복종과 동시에 경계를 했다.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승리한 쪽 사람들은 승리에 너무 취해 있었다. 해방된 지역의 법집행자들은 대부분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상부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사¹⁾의 주석인 땅이라는 인물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용감한 특공대 대원이었다. 하지만 사의주석을 맡고부터는 언제나 AK 소총을 매고 다니며 주민들을 맘대로 다스렸다.

남까도 예전에 특공대원이었다. 해방 이후 집이 없어, 흥강변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는 비극적 인물이다. 죽은 아내, 뜨남을 태우고 오는 유령배를 밤마다 기다린다.

“고 언덕 강변에서 썰물 때 남까는 앉아서 낚시를 한다. 그는 얇은 바지를 입고 있다. 두 허벅지는 구리기둥처럼 단단하다. 그는 황혼 속에 잠긴 채 앉아 있다. 모래 언덕과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는 옥수수 줄기들 사이. 하늘 아래 외진 곳, 높고 낮은 무덤들과 함께.

남까는 무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물고기를 미끼로 쓰기 위해 땅을 파서 벌레를 잡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응옥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있는 듯했다.”

소설의 한 장에 걸쳐서 승자의 비극을 말했다.

“그는 벌레를 낚시바늘에 걸고, 쌀가루 한 움큼을 물에 뿌렸다. 흐릿한 쌀가루 먼지가 향을 풍겼다.

황혼 속에서 아주 작은 쌀가루들이 천천히 물속에 가라앉았다. 노란 쌀가루들이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나는 현기증이 났다. 그 붉은 색이 마치 피처럼 보여서. 햇빛에 굴절된 황혼 때문일 수도 있고. 무덤가에 가득한 마른 꽃들과 붉은 타일 때문일 수도 있다.

남까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 이 강 아래에 사는 물고기는 새로운 피냄새를 맡을 수 있어. 그런데 먹지 않나봐. 이것 봐봐, 여기 강 전체가 온통 핏빛이야. 강, 하지만 내 말은,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아. 봐, 강한 개는 피투성이야. -

- 남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요?

- 인생이 그런 거지. 사람의 긴 세월도 그저 푹 딱한 순간이나 마찬가지로.

허...허...허...

남까의 웃음소리가 강가를 가득 채웠다. 그는 낚시줄을 갑자기 낚아챘다.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 올라왔다. 손바닥만한 잉어였다. 잉어는 아주 세계 발버둥쳤다. 하마터면 내가 놈을 놓칠 뻔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술 한 잔을 마셨다. 술냄새가 구운 생선냄새보다 강했다. 나는 대답하게 말했다.

-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아저씨가 숨을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 젠장! 신음소리 들리니? 누가 지나가는 걸 봤니? 저기 말이야. 잘 봐봐. 물이 이렇게 조용하면 곧 홍수가 날 조짐이야.

이런 물고기들이 강으로 몰려들면 그런 거야.

나는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누가 신음소리를 낸다고 저를 겁주고 그러세요.

1) 한국의 읍, 면에 해당하는 행정 단위

자꾸 그런 소리하면 아저씨 하고 다시는 안 놀거예요.

남까는 눈앞의 강물을 바라 보면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 뜨남의 배가 방금 지나갔어. 뜨남! 뜨남! 맞지?

남까는 손나팔을 만들고 혈떡대며 술냄새를 풍기면서 불렀다. 물표면이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물고기와 새우들이 물 위로 펄떡거렸다.

배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무서울 정도로 주위가 조용해졌다. 남까는 낚시줄을 버리고 굳은 자세로 앉아서 강물결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 그래, 네가 어찌 뜨남을 알겠어. 천당에 자리가 없고, 저승사자도 고개를 가로젓기에 귀신 같은 것이 되었어. 결국 물위를 떠다닐 수밖에 없어. 정말 불쌍하지. 내가 얘기를 자세히 해줄테니 잘 들어봐.”

“남까는 그 쓰디쓴 꿈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내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했다. 크게 소리도 지르고 울어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

- 알고 있지? 육체는 세 가지 운명을 겪을 수 있어. 잡아 먹혀서 분노가 되거나, 땅에 묻혀서 구더기가 되거나, 화장을 해서 재가 되거나 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내는 그 어떤 선택도 받지 못했어. 그냥 물에 녹아서 구름이 되었다가 저 어두운 하늘의 달빛이 되는 거지.

나는 가만히 꿈쩍 않고 앉아서 남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반짝거리기 시작한 달빛을 올려다 보았다. 불빛이 갑자기 타올랐다. 지앙이라는 인물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한 인물이 더 있는데 주로 인칭대명사로 지칭되는 그는 니엠이다. 니엠은 승자와 패자, 선과 악을 화해시키는 인물이다. 비극은 비극일 뿐이다. 꾸언쪽 대위가 뜨남을 강간한 결과로 태어난 인물로 얼굴이 예뻐다. 뜨남은 남까의 부인이다. 나중에 꾸언쪽은 잘못을 깨우치고 진심을

다해 수행하는 스님이 된다.

응옥마을에서 니엠은 길 잃은 한 송이 꽃과 같다. 승리 한쪽도 가까이 하길 꺼려하고, 패배한 쪽도 두려움을 느꼈다. 고독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진선미의 자아를 가지고 절대고독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동네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많이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하기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이공 정권의 경찰인 아빠와 관계가 맺어지는 걸 모두들 두려워했다. 지금은 스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빠와 나를 대하는 마을사람들의 냉담한 태도를 진심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전의 대위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때문이 아니었다. 전쟁 상황에 잠기면, 이 작은 땅에서 어느 집이나 사이공 군대나 권력과 관련되고, 혁명군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들은 살인을 싫어했을 수도 있다. 아버지는 예전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들은 피값의 빛은 진자들을 너무도 두려워했다. 전선에서 총을 들고 있었다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혁명군을 향해 총을 쏘았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과거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피로 얼룩진 사람으로 벗어나려 했다.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 노력해도 영혼의 냄새는 여전히 퍼지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피했던 것은 내가 빼놓아진 사랑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그런 아버지에게 길러지는 게 불쌍했기 때문이다.

그 모두대! 이 맑은 아침,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이 승자 앞에서 무언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것을. 연루되는 것도 두렵고, 폐가 되는 것도 두렵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려면 복잡한 일에 얽히면 안 된다. 그것이 전쟁을 계속해 온 이 땅에서 자기 자신과 친척들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아무도 내일 자신

이 죽을지 살지 몰랐다.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이 점점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제에 대해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빛줄기가 나를 비추고 있는가?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폭풍우에 씻겨서 자란 빛줄기였다. 그 신비로운 빛줄기는 쓰디쓴 고통과 희미한 단맛을 다 녹여냈다. 그리고 갑작스런 바람에 별과일 나무줄기가 신선한 덩굴을 지나며 홍강가에 농익은 별과일 향기를 짙게 뿌렸다. 강은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다.

그 빛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천수만의 광선도 또한 분명한 것은 오늘 아침 우리 아버지에게도 비춰진다는 것이다. 마치 조화로운 영혼으로써, 전령으로서.

니엠은 결국 땅이라는 청년의 갈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처녀성을 바친다. 마을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표시로 땅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려 한 것이다.

“나는 빛속에 누워있었다. 땅의 폭력적인 본성을 비웃는 하늘과 공범이 되었다. 나는 누워서 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맞이했다. 나는 내가느다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들을 빗방울들이 녹여주길 빌었다.

땅이 울타리를 재치며 정원으로 들어왔다. 어깨에 맨 긴 총이 울타리에 걸렸다.

나는 그가 정원에 들어오는 걸 몰랐다. 잠자리와 나비떼, 별과일 나무의 곤충들이 보초를 서주지 않아 알 길이 없었다. 비가 세상만물을 피곤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어디론 가사라져 버렸다. 나는 잠에 취했다. 풀밭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풀밭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즐겼다.

가느다란 비는 내가 누워있는 곳의 빈랑 풀과 가시 잎이 잘 자랄 수 있

도록 바닥을 충분히 적셨다. 벌거벗고, 즐거워하며 잔다. 비는 내가 누워있는 빈랑 풀과 가시 잎으로 가득 찬 땅의 물을 충분히 적셨다. 풀이 가렵거나 따갑지 않았다. 비가 풀과 땅바닥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방울은 연약하면서도 매혹적인 촉촉함을 갖고 있었다. 촉촉함은 세속과 공범이 되었다. 성스러움을 비웃었다. 거룩함을 비웃고, 애무하고 재촉했다. 단지 지금 뿐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실제의 세계에서 사지가 갈라지고 몸이 찢겼을지라도.

낮과 밤, 밝음과 어둠의 경계를 가늠하지 못하는 꿈속에서, 나는 누군가가 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두 손이 여기저기를 기어다녔다. 그리고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촉촉한 손과 코끝을 찌르는 남자 냄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태만하게 몸을 풀밭에 내맡겼다. 내 영혼은 후세의 도시전체를 떠돌았다. 내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에 있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내의 집을 찾아다녔다.

나는 비와 촉촉함에 몸을 맡겼다. 내 몸을 배부르게 살핀 눈빛 아래 수치심도 있고 맡겼다. 지금은 눈빛만이 아니다. 내 몸이 환영을 했다. 운명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그렇게 공범이 되었다. 아니다. 나는 실제의 세계에서 꿈을 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음을 알았다.

어딘가를 뚱뚱 떠다니는 시간 속에, 나는 내 자신이 외의 다른 육체의 무게를 느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내 살과 피부가 찢겨져서 조각조각 촉촉한 빗물에 흠뻑 적셔졌다.

나의 냄새는 세속과 남자의 짙은 냄새에 의해 묻어졌다.

땅이 떠났다. 총의 개머리판이 별과일 나무 뿌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다. 옷을 입기 위해 일어나려고 애썼다. 육신에 영혼이 돌아오도록 애썼다. 흙바닥에 신선한 피가 흥건히 고였다.

몸에 은근한 고통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몸을 물 속에 담갔다, '차가운 물속'에 몸을 잠기게 하고 싶었다. 차가움은 오래 보존되는 것이므로. 니엠처럼 진선미의 마음을 가진 이에게 나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 그 다음 니엠은 어부에 의해 구조되었다. 예전에 거지로 한번 만난 인연이 있었던 그가 지금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차가운 물』은 희미한 사랑이었다. 지앙과 니엠 사이에 깊은 곳에 자리했다. 지앙은 북부에 갔다고 돌아온 인물로 남북 두 지역, 두 사상,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연결하는 인물이다. 그들이 끝을 서로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서로에게 의미가 있었다.

“엄마는 물고기 떼와 함께 강 아래 있다. 어느 날 그녀의 꿈에 나타난 엄마가 물었다. 니엠아! 행복하니? 그날 밤 그녀는 강으로 달려가서, 새우가 가득한 그물을 거둬들였다. 강가에 올라 설 때 비엣이 길을 막고, 끔찍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줄래. 그러자 그는 한쪽으로 비켜섰다. 나중에 지앙이 누구를 사랑할지, 누군가 물으면, 비엣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

3. 성벽

남북 베트남은 다시 한집이 되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사상관념과 세계관이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무형의 횡단선이 짙게 있었는데, 전쟁 후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통합과정을 늦추었다.

소설 『성벽』은 이상을 구현하고자 나선형의 방향을 따르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술했다. 소설 『성벽』의 주인공은 지식인 기자다. 하노이를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남북 두 지역간의 문화와 행동방식을 결합하는 요소가 있다. 도이머이 시대에 이르러서도 양쪽 지역에서 모든 것들이 여전히 아주 깊이 동떨어져 있었다. 사이공의 신문제작 방식도 하노이와 달랐다. 사이공은 시장경제를 능동적으로 따른다. 하노이도 깊게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 아직도 시장성이 부족하다. 하노이에서 신문기자를 하던 사람은 남부에 가서 활동하려면 고립이 된다. 남부사람도 하노이에 오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다.

“지금까지 즈엥은 두 달 동안 멀리 있었다. 호치민시의 신문지사는 지부장이 공석이 되었다. 지난번 지사장은 하노이신문의 전체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똥단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호치민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하노이의 모든 신문, 잡지, 월간지, 중앙 또는 지방지가 겪는 일반적인 상태다. 서로 업무협력이 안 되는 것은 지역적 특성 때문이 아닐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호치민시의 신문들은 다채롭고, 열정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오락성을 띠고,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남부사람 특유의 성격이 있다. 심지어 때로는 지나치게 사회문제를 까발려서 정상적인 길을 이탈해 버리는 어두운 면도 있다.

하노이의 신문은 규범적이고, 냉담하고, 노쇠하고, 고루하고, 높은 서열의 지위를 대변하고, 그저 정해진 길로만 가고, 작은 돌멩이 하나만 철로에 끼어 있어도 벌렁 나자빠진다.

두 가지를 합하면 정통을 개선하는 신문이 될 것이다.

남쪽과 북쪽은 내용과 서술방식에 대한 관념의 차이로 격렬하게 맞부딪친다. 남쪽은 문화, 문예, 스포츠, 연예인, 유명한 의사생활에 대한 기사와 섹시 한 사진, 다채로운 색채를 더 담으려고 하고 북쪽은 - 사고방식도 북쪽에 자리한 - 사회여론을 바로잡기 위한 주장, 사회 안녕질서를 위한 조사, 정부의 정책과 소식, 흑백예술사진을 주로 담으려 하는데, 이런 것은 남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남쪽의 발행부수가 북쪽보다 많은데, 누드도 아닌 흑백예술사진을 젊은 독자건 늙은 독자건 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쪽에 있는 상급자는 자신의 신문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만족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아주 큰 교양 높은 신문을 사진이나 연예인의 개인사,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들로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것, 적극적인 것, 진보적인 것 그리고 소극적인 것까지 모두 문학속으로 밀려들어 온다. 특히 베트남의 산문문학은 사회생활의 심리를 측정하는 온도계라 할 수 있다.

베트남 문학은 2번의 항불항미 전쟁 과정에서 크게 분화된 사회의 모습을 기록하거나 전할 수밖에 없다.

4.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노인

베트남의 수많은 장편과 단편소설 중에서 내가 쓴 단편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노인』에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 그리고 전쟁 상처의 치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애를 다룬 소설로 아주 희귀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은 실제의 모습을 보고 그린 것이다. 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간 적이 있다. 전체 이야기 모두가 실제의 이야기이며 단지 인물만 좀 더 창조적으로 그렸을 뿐이다.

전쟁의 고통스러웠던 시간 속으로 돌아가 보자.

“총성이 건조하게 울렸다.

후추밭에서 벌거벗은 소녀가 비틀거리며 뛰어갔다. 찢어진 블라우스는 잿빛 하늘에 얼기설기 걸린 구름조각처럼 거추장스럽게 걸쳐져 있었다.

박정희군의 사격수들이 사면을 향해 눈빛을 반짝였다. 총구 하나가 소녀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속도가 정말 느렸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에서 달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울음소리가 길 잃은 새끼 고양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처럼 들렸다. 소녀의 엄마는 정원에 쓰러져 있었다. 입을 크게 벌린 채.

피가 흘러내려 흙을 적시다. 점점 말라갔다. 사격수는 주저하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동료들이 사내의 팔에 총을 겨누었다.

- 썩!

사내는 똑바로 서서 아기의 등에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총구를 내려 놓았다.

사내는 흙더미 앞에 무너지듯 주저 앉았다. 탄약 냄새와 피 냄새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어째서 이 나라는 쓰리고 매운 연기가 이리도 많은 말인가.”

여러 해 가지 난 후에 그 군인은 식당을 하는 노인네가 되었다.

“그는 무심코 베트남어로 물었다.”

- 베트남?

- OK!

여자는 놀랍고 반가움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추운 서울 한복판에

서 어떤 사람이 내가 베트남 사람이란 걸 알아차린다는 것은 정말 재미 있는 일이었다. 노인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 나! 사이공, 붕따우!

노인은 다시 맞은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했다. 여자는 사진을 신중하게 바라보았다.

꽤 잘 생긴 남자가 대범하게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아직 전투를 치르지 않은 듯했지만, 눈빛은 이미 우울했다.

그는 신난 모양인지 부엌으로 달려갔다.

노인은 베트남 여자 둘을 따듯하게 환영했다. 마치 옛날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노인은 그녀들에게 서울구경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그래, 갈 수도 있지. 두려울 건 없어. 처음 한국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아무도 자동차 시내구경을 시켜주겠다는 이가 없었다. 몇 번의 교류행사 후에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아주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 안내에 따라 스스로 전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차로 거리구경을 시켜주겠다는 사람이 생겼으니 바랄게 더 무엇이 있겠는가.

혹시 노인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베트남 여자 둘 다 한국어를 모른다. 이 낯선 땅에서 밤이 되면 땅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인다. 비록 바깥에는 불빛이 뉴욕처럼 번쩍이지만 차에 시동이 걸리고 나면, 어떻게 예의 바르게 차를 세워 달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배우는 사람으로서 한국어 문장 몇 개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는 계속 달렸다, 하염없이 달리더니 서울을 벗어났다.

노인은 한국 노래의 CD를 틀었다. 남자가수의 목소리는 강하고 감동적이다. 노인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어떤 장소를 지날 때 마다 노인은 노래를 멈추고 소개를 했다. 여자와 여자의 친구는 노인의 말을 전혀 이해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나는 길마다 높은 곳에 이정표가 걸려 있고, 거기에 지명이 쓰여 있었다. 그래서 두 여자 모두 자신들이 어느 지명을 지나쳐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자동차는 거의 한 시간쯤 달렸을 때, 여자와 여자의 친구는 노인이 자기들을 남북한 국경으로 데려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길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등근 철조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철조망 너머로는 한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여러 서치라이트가 풀잎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비추었다. 그건 보호등이었다. 만약 북한사람이 강물을 따라 헤엄을 쳐 와서 한국으로 건너 오려하면 저 흐리멍덩한 등불이 그들의 길을 막는 첫 번째 경비병 역할을 할 것이다. 건너와서 뭐하려고? 남북한 사람들 모두 똑같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남북한이 한집처럼 서로를 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인은 여전히 CD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 남자가수의 목소리가 슬픈 음조를 넘어 비통할 정도였다. 나중에 여자는 노래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젊은 나이에 죽은 유명가수의 유명한 노래였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남북의 이별은 죽은 가수의 슬픈 음조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막고 서 있는 얼룩무늬 군인들의 무리의 모습에 의해 나타났다. 군인들이 무언가를 물었다. 노인은 답하기를 베트남 아가씨들에게 이 기괴한 국경을 알려주려고 다리 앞에까지만 간다고 하는 듯했다. 그런 후 차를 뒤로 돌려서, 한국인이 세워놓은 국경석과 위령탑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다리와 아주 가까웠기에 서서 국경 너머를 바라 볼 수 있었다.”

아마도 베트남인과 한국인만이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노인』을 읽었을 때 전쟁이 야기한 이별의 고통과 남북분단, 슬픈 운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범위 안에서 나는 남북통일 과업 속에서의 베트남문학의 노력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아마 한국문학도 그럴 것이다)

5. 문예역량 출석부

베트남문학사를 면밀히 관찰한다면, 전후와 도이머이 시대의 정말 풍부했던 작가들과의 창의력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매년 독자의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아주 많았다. 그 작품들 중 좋은 작품이 항상 있었고, 사회생활과 가까이 함께하며, 남북의 화합에 필요한 삶,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고 구현했다.

응웬 카이(Nguyễn Khai), 응웬 민 찌우(Nguyễn Minh Châu), 풍꾸안(Phùng Quán), 레 루(Lê Lưu), 마 반 강(Ma Văn Kháng), 도쭈(Đỗ Chu)와 같은 작가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유의 첫 벽돌을 놓았다.

쭈 라이(Chu Lai), 즈엉 주이 응으(Dương Duy Ngử), 응웬 찌 후언(Nguyễn Thị Huân), 쯙 쯙 딘(Trung Trung Đĩnh), 응웬 각 쯔엉(Nguyễn Khắc Trường), 쩐 반 뚜언(Trần Văn Tuấn), 꾸엇 꾸앙 투이(Khuất Quang Thụy), 즈엉 흐엉(Dương Hương), 반 레(Văn Lê), 응웬 티 응 옥 하이(Nguyễn Thị Ngọc Hải), 쩐 후이 꾸앙(Trần Huy Quang), 다오 탕(Đào Thắng), 부티홍(Vũ Thị Hồng), 응웬 꾸앙 립(Nguyễn Quang Lập), 쑤언 득(Xuân Đức), 응웬 바오(Nguyễn Bảo), 쩐 반 뚜언(Trần Văn Tuấn)과 같은 작가들은 전쟁과 전후에 대해 깊이 있는 소설로 성공을 거뒀다. 호앙 꾸옥 하이(Hoàng Quốc Hải), 응웬 꾸앙 텃(Nguyễn Quang Thân), 응웬 쑤언 칸(Nguyễn Xuân Khánh), 부이 비엣 시(Bùi Việt Sĩ)와 같은 작가들은 역사를 주제로 깊이 있는 작품

을 썼으며 이들 모두 시리즈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십여 년 동안 더 자유롭고, 더 대담하고, 더 많은 돌파를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분위기에 의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산문문학은 도이머이 직후에 깊은 인상을 남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도이머이 직후의 작가들은 레 르(Lê Lưu), 마 반 강(Ma Văn Kháng), 즈엉 흐엉(Dương Hương), 바오 닌(Bảo Ninh) 등이 있다.

지난 몇 십 년간 남북 양 지역의 마음을 통일시키고 민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 속에 산문문학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아마도 40대, 50대, 60대 작가들의 단편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유명작가들에 의해 창작한 단편들에 대해 만약 선정 작업을 하게 되면 수많은 작품들이 세계의 재미있는 작품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작품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 열거하게 되면 분명히 충분치 않을 테니.

도이머이 시대의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작가는 응웬 후이 티엵(Nguyễn Huy Thiệp), 레 민 쿠에(Lê Minh Khuê), 따쭈이 안(Tạ Duy Anh), 이 반(Y Ban), 호 안 타이(Hồ Anh Thái), 보 티 쑤언 하(Võ Thị Xuân Hà), 응웬 티투 후에(Nguyễn Thị Thu Huệ), 판 티 방 안(Phan Thị Vàng Anh), 보 티 하오(Võ Thị Hào), 팜 티 민 트(Phạm Thị Minh Thư), 응오 트 립(Ngô Tự Lập), 팜 응옥 띠엔(Phạm Ngọc Tiến), 쩐 투이 마이(Trần Thùy Mai), 도 빅 투이(Đỗ Bích Thúy), 응웬 옥 트(Nguyễn Ngọc Tư), 바오 부(Bảo Vũ), 득 반(Đức Ban), 응웬 티 프억(Nguyễn Thị Phước) 등으로 산문문학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베트남 작가협회의 각종 문학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가층은 작가협회의 소설창작대회, 작가협회가 각종 기관들과 공동으로 주관한 경연대회를 통해 나타났다. 응웬 빈프 영(Nguyễn Bình Phương), 응웬 비엣 하(Nguyễn Việt Hà), 응웬 박선(Nguyễn Bắc Sơn), 스엉 응웬 민(Sương

Nguyệt Minh), 투이즈 영(Thùy Dương), 빅 응언(Bích Ngân), 또 하이 번(Tô Hải Vân), 타이 바 러이(Thái Bá Lợi), 응웬 히에우(Nguyễn Hiếu), 쩌름 흐엉(Trâm Hương), 풍 디엵(Phong Điệp), 응웬 딘 뚜(Nguyễn Đình Tú), 응웬 잔 람(Nguyễn Danh Lam), 쩌름 나 투이(Trần Nhã Thụy), 지리(Di Li), 응웬 쉰언 투이(Nguyễn Xuân Thủy), 응웬 응옥 투언(Nguyễn Ngọc Thuần), 티 엔선(Thiên Sơn), 도 띠엔 투이(Đỗ Tiến Thụy) 등이 많은 상을 받았다.

6. 마무리

이상으로 열거한 이름들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아주 많은 기대를 받으며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

행운은 작가의 길을 열어주는 보석과 같다. 아주 정확한 시점에 나타나는 작가가 있다. 또한 독자들의 요구에 맞는, 대중의 문화적 취향에 맞는 작품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작가의 작품은 순식간에 주목을 받아서 저절로 홍보가 되기도 한다.

시장경제와 출판허가의 개방정책에 의해 좋은 작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쓰레기 같은 작품도 적지 않게 등장했다. 진정한 가치들이 허황된 가치들에 의해 희미해 지고 깎여 나가기도 한다. 많은 젊은 작가들이 개인적인 PR에 의존하면서 정작 작품은 미숙하기 그지없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책 제목으로 독자를 낚을 수 있는 문구를 쓰고, 성행위를 조잡하게 쓰고, 도덕문화를 부실하게 드러내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혁명과 전쟁으로부터 장성한 작가들은 확고하게 자신만의 전통적인 글쓰기에 매진하는 동시에,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창작방법 완성하기 위

해 계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작가군은 변종도 꽤 많고, 이질적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세계 경제공황과 개인적인 심리상태의 공황에 의해 더욱 그러한 점이 나타난다.

작가들은 작품의 성공을 결정하는 작품구조에 대해 이상을 갖고 있다. 그와 별개로, 오늘날은 작품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프리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프리즘은 독자 대중이 환영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주제, 창작방법, 작가의 접근방식, 작가윤리, 작가와 독자의 관계 등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그리고 작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일의 변화무쌍한 사회사 문제, 새로운 형식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창작방법의 문제, 베트남어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신조어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 현대문학에서의 성평등 문제, 남북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커다란 역할에 대해 글쓰는 이의 감각 속에 자리한 심혼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작가들 앞에 놓여있다.

이 글은 단지 문제를 상기시키고, 충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을 뿐, 전체를 통찰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 정말 어렵다. 사회에 커다란 정신적 가치를 위해 공헌을 한 작가와 작품들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었다. 남북 베트남 통일과 업 속에서의 베트남문학의 노력을 감히 이 글을 통해 규명하기는 한계가 아주 많다. 토론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ABSTRACT}

**The Literary Attempt of Vietnam
for North and South Unification**

Bo Ti Ssueon Ha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literature attempts contributed to Vietnam's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chieved in 1975. Especially, even though the war against the U.S ended long ago and the 43 years passed by after unification, Vietnamese are still suffering traumatically from the wars. It applies to all generations regardless of their war experiences. The literatures at that time contributed to healing the pain and suffering from the war or the unification of Vietnamese people.

This research was done using case studies of my collection of short stories including "In the Cold Water", "Rampart", and "The old man running a restaurant in Seoul". These works reflected the Anti American wars through self-salvation occurring between 1965 and 1975, and focused on instilling patriotism and evolutionary heroism. The literatures during Doi-Moi and before and after the National Salvation against America realized new expressions and ideologies, took new steps in modern Vietnamese literature, showed the spirit of unity, and helped widely spreading this throughout the generation.

However, after Doi-moi, even though a variety of different works were rapidly appearing and there were some successful works in terms

of literary value and popularity, the literature also fell into confusion due to the mass production of low-quality and ungrounded works. Since the absolute key for success is the reader, the works with topics, writing techniques, and writer's ethic satisfying the readers should be written.

Keywords: North and South Vietnam, Unification War, Trauma, Literature for unification, DoiMoi

Sự nỗ lực của văn học Việt Nam trong sự nghiệp thống nhất hai miền Nam Bắc

Bo Ti Ssueon Ha

1. Dề dẫn

Chiến tranh là điều không ai mong muốn. Các cuộc chiến tranh trên đất nước Việt Nam, đặc biệt cuộc chiến tranh chống xâm lược của đế quốc Mỹ tưởng chừng đã lùi xa, nhưng kí ức về nó vẫn làm những người đã trực tiếp tham chiến hay gián tiếp, những thế hệ sinh ra sau cuộc chiến và rất nhiều số phận liên quan phải trăn trở, day dứt, đau đớn, khổ nạn, và cả dẫn vạt tâm hồn.

Chúng ta đều hiểu rằng, tầm vóc của văn học thời nào cũng vô cùng quan trọng đối với vận hội đất nước. Sự nỗ lực của văn học Việt Nam trong sự nghiệp thống nhất hai miền Nam Bắc không chỉ dừng lại sau ngày 30 tháng 4 năm 1975. Sự thật là, cho đến ngày hôm nay, sau hơn 43 năm Nam Bắc về một nhà, văn học vẫn phải làm nhiệm vụ vô cùng quan trọng trong việc hàn gắn vết thương chiến tranh, góp phần đem lại sự thống nhất đất nước không chỉ về mặt địa lí, lịch sử, mà là ở chính cốt cách tâm hồn tinh thần dân tộc Việt.

Thời kỳ từ những năm 1965 đến 1975, toàn bộ nền văn học của hai miền Nam Bắc đều tập trung phản ánh cuộc chiến đấu

chống Mỹ cứu nước với chủ đề bao trùm là ca ngợi tinh thần yêu nước và chủ nghĩa anh hùng cách mạng. (Xin không đề cập đến một dòng chảy nhỏ phía những nhà văn sống ở miền Nam, thuộc chính quyền Sài Gòn).

Thời kỳ này, nhiều tác phẩm có giá trị nghệ thuật cao, biểu hiện sự tìm tòi cách thể hiện mới và cách tân, đánh dấu bước tiến mới của văn học Việt Nam hiện đại: Thể hiện cuộc ra quân của toàn dân tộc, khám phá sức mạnh đoàn kết của con người Việt Nam, khái quát tầm vóc dân tộc trong thời đại mới, tăng cường chất suy tư chính luận, tạo âm vang rộng lớn mang hơi thở thời đại.

Trong khuôn khổ bài viết này, tôi xin đưa ra một số dẫn chứng cụ thể thông qua 3 tác phẩm của tôi: tiểu thuyết Trong nước giá lạnh, tiểu thuyết Tường thành, và truyện ngắn Ông già bán quán ăn ở Seoul.

3 tác phẩm này nằm trong dòng chảy văn xuôi đương đại Việt Nam, trong đó đề cập đến sự nghiệp thống nhất hai miền Nam Bắc, đặc biệt thời kì hậu chiến tranh và thời kỳ đổi mới.

2. Trong nước giá lạnh

Mở đầu cuốn tiểu thuyết là hình ảnh 1 địa danh mà tôi chọn: nằm gần vĩ tuyến 17, vĩ tuyến chia cắt Bắc Nam; và cũng là quê hương tôi - cố đô Huế.

“Ở ven ngoại ô thành phố, nằm bên một khúc rộng của sông Hương, một trong những nơi có thể coi là trù phú nhất của những bãi bồi ven sông, có một làng nhỏ tên là làng Ngọc. Một bên làng là con đường trải nhựa chạy xuôi về cửa biển Thuận An - con đường quân sự do Mỹ làm thời chiến tranh. Một bên, vào ngày hôm đó, dòng sông Hương giấu hết vẻ hiền từ vốn có đang như sắp lồng lên dữ dội”

Thời kì này là ngay sau giải phóng. Người dân ở tất cả các vùng ven nội đô các thành phố phía Nam đều ngổn ngang rất nhiều hệ lụy. Họ sống trong sự sợ hãi ngẫm chính quyền mới. Họ vừa nể phục vừa cảnh giác. Không kể các thế lực thù địch rất nhiều.

Trở trêu phía người chiến thắng lại quá say sưa với chiến thắng. Những người thực thi pháp quyền ở các vùng mới giải phóng hầu hết chưa nắm được luật. Tất cả chỉ theo sự chỉ dẫn rất nhiều là cảm tính của cấp trên. Nhân vật Tăng, chủ tịch xã là hình ảnh đó. Anh là chiến sĩ biệt động dũng cảm. Nhưng khi nắm quyền chủ tịch 1 xã ven đô thì luôn cầm khẩu AK để “trị” dân.

Ông Năm Cà, một nhân vật chính phụ, là biệt động thành trước đây. Sau giải phóng có nhà không ở, lại ra ven sông Hương dựng lều. Ông Năm là hình ảnh bi kịch, đêm nào cũng ngóng con thuyền ma chở người vợ biệt động đã hi sinh của mình là bà Tư Nam trở về.

“Mé bờ sông bên sườn gò Mả, sát mép nước, ông Năm Cà

ngồi chồm chệ thả mỗi câu. Ông mặc chiếc quần sà lỏn. Hai bắp vế rần như hai cột đồng. Ông ngồi chìm trong bóng chiều chạng vạng. Lẩn giữa những đụn cát và những thân bắp đang lên xanh. Những nắm mộ lô nhô cao thấp như cồi u tịch chìm dưới bầu trời...

Ông Năm thuộc từng ngôi mộ. Ông đào bới lớp đất phía trên để nhặt giun làm mỗi câu. Ông hầu như rất ít trả lời những ai đi ngang qua chào. Nhưng cứ theo cách cư xử của mọi người thì hình như dân làng Ngọc rất nể vì ông...

Cả một trường đoạn nói lên bi kịch của người chiến thắng:

“Ông móc giun vào mỗi câu, vốc thính tung xuống nước. Bụi thính mù mịt thơm sặc. Trong ánh hoàng hôn, những hạt thính nhỏ xíu chìm dần dưới làn nước, màu vàng của thính dường như đang chuyển sang màu đỏ. Ngay cả tôi cũng thấy chói chang và hơi sờ sợ cái màu đỏ như máu ấy. Có thể do hoàng hôn đã bị khúc xạ bởi ánh mặt trời. Cũng có thể do màu đỏ của gạch lát và của những bông hoa khô đắp đầy quanh những ngôi mộ.

Ông Năm lắc đầu:

- Cá dưới khúc sông này ngửi mùi tanh máu mới xúm tới, chú thính đâu ăn thua. Con thấy chưa, cả một khúc sông có màu đỏ máu thế kia.

- Vậy là sao bác Năm? Con có thấy màu đỏ gì đâu?

- Chuyện đời đó con. Kiếp người dài lâu mà cũng chỉ tích tắc là rồi.

Hơ... hơ... hơ...!

Năm Cà bật cười vánh cả mặt sông. Ông lại giật dây câu. Lại một chú cá nữa. Lần này là một con chép cỡ bàn tay. Con chép này giãy rất mạnh. Suýt nữa tôi để tuột nó xuống sông. Ông Năm lại ngửa cổ tu một hơi rượu. Mùi rượu nồng nặc át cả mùi cá nướng. Tôi bỗng dạn hẳn:

- Sao bác uống nhiều thế? Con ngửi mùi rượu bác thở ra, muốn nôn.

- Tổ cha mi! Có nghe thấy tiếng rên không? Có thấy ai chống đò đi qua không? Dưới đó đó. Con nhìn kỹ cho bác coi thử. Nước lặng thế này là sắp lụt lớn đó. Cá bống mủ lại kéo về đặc sông cho coi.

Tôi kéo tay ông:

- Có ai rên đâu mà bác dọa con, bác dọa lần sau con không ở lại với bác nữa.

Ông Năm Cà bỗng tái mặt, nhìn ra khoảng sông trước mặt.

- Thuyền Tư Nam vừa đi qua. Tư Nam...! Phải bà đó không?

Năm Cà bắc loa tay gọi hỏn hển trong hơi rượu. Mặt sông loáng bạc, óc ách cá và tôm quẫy.

Tịnh không một bóng thuyền.

Không gian im lặng đến đáng sợ. Ông Năm bỏ dây câu, ngồi nhìn sững ra dòng nước.

- Ồ, mà con đâu biết Tư Nam. Thú người như bà ấy, thiên đàng không có chỗ, quỷ sứ cũng lắc đầu. Bà ấy chỉ còn cách đi

lênh đênh trên nước mà thôi. Thật tội. Để bác kể cho nghe...”

“Ông Năm vẫn chưa dứt ra được khỏi giấc mộng đắng cay nào đó. Ông như muốn giải bày cùng tôi. Muốn gào muốn hét mà không thể.

- Con biết không, thể xác có thể phải chịu ba số phận: bị ăn thịt và biến thành phân, bị đem chôn và biến thành giòi, hoặc bị hoá thiêu và biến thành tro. Vậy mà bà ấy chẳng chọn cách nào, lại tự mình tan thành nước, tan thành mây, thành ánh trăng trên cái bầu trời đen ngòm kia.

Tôi ngồi sững nhìn ông Năm Cà. Rồi ngược nhìn ánh trăng bắt đầu rục rở. Lửa bếp chọt bùng lên...”

Nhân vật tôi - tên Giang, là nhân vật kể chuyện.

Còn một nhân vật nữa, được dùng đại từ nhân xưng tôi trong tiểu thuyết, là Niệm. Niệm chính là nhân vật kết nối hòa giải giữa bên thắng và bên thua, giữa thiện và ác. Là bi kịch trong bi kịch. Một người con gái đẹp, kết tinh của cuộc cưỡng hiếp pha mối tình một phía của đại úy Quân Trọc với bà Tư Nam, vợ ông Năm Cà. Về sau chính ông Quân Trọc lại là một phật tử tu hành tha thiết nhất.

Niệm có mặt ở làng Ngọc như một bông hoa lạc. Bên thắng cũng ngại gần mà bên thua cũng sợ hãi. Sự cô độc đến tận cùng. Nhưng cô lại là một bản ngã CHÂN THIÊN MỸ, chấp nhận sự cô đơn tận cùng. Cô biết nhiều trai làng yêu say mình, nhưng không dám đến gần mình, sợ liên lụy với cha để mình là tay cảnh sát ngục (dù ông đã ăn chay niệm Phật).

“Tôi bỗng hiểu rằng tôi cần phải thành kính nghiêng mình trước vẻ ghê lạnh của người làng với cha con tôi. Từ lâu tôi đã biết, họ không phải vì căm thù tên đại úy ác ôn khi xưa. Bị chìm ngìm trong cuộc chiến, không nhà nào ở cái mảnh đất nhỏ xíu này là không dính tới nguy. quân nguy. quyền, dính tới ít nhiều đến cả phía cách mạng. Họ có thể ghét chuyện giết người, mà cha tôi trước đây thì đã giết người. Họ có thể sợ hãi người nợ máu quá nhiều. Nhưng đã cầm súng ở một bên chiến tuyến, thì không thể không bóp cò. Mà cha tôi thì cũng đã quay súng lập công với cách mạng.

Họ xa lánh quá khứ đau thương mà cha tôi là hiện hữu của cái quá khứ đó? Hay họ xa lánh kẻ đã vấy máu, dù đã cố sức rửa sạch nhưng mùi tanh của những linh hồn còn phảng phất?

Họ xa lánh tôi vì tôi là kết quả của một chuyện tình méo mó? Hay họ xa lánh tôi vì tội nghiệp cha nuôi tôi?

Tất cả! Và, trong cái buổi sáng trong lành này, tôi đã ngộ ra một điều: mọi người sợ cái gì chưa rõ ràng trước người chiến thắng. Sợ bị liên lụy. Sợ phiền hà. Chẳng thà cúi đầu làm ăn, không liên quan đến những chuyện rắc rối. Đó là cách bảo toàn mình và người thân trên một mảnh đất chiến tranh liên miên, không ai biết mình ngày mai được mất ra sao; mặc dù chiến tranh đã chấm dứt, mặc dù mọi sự đã dần đi vào quỹ đạo, mà những con người bé nhỏ vẫn ngơ ngác, sợ hãi cái ngày hôm qua...

Ánh sáng nào đã soi cho tôi trong khoảnh khắc ngộ ra những điều này?

Đó là thứ ánh sáng được nuôi dưỡng qua nhiều năm tháng, tắm đẫm nắng mưa gió bão. Thứ ánh sáng huyền diệu được đúc kết từ bao đau thương đắng cay, bao ngọt ngào mịt mờ. Mà có thể chỉ nhờ vào một cơn gió bất chợt được những cánh khế kết giao đưa qua từng thớ gỗ tươi rói, lật lên mùi thơm nồng của khế chín ngọt mát bên bờ con sông Hương, con sông vừa dịu dàng vừa đáng sợ.

Trong muôn ngàn tia sáng để tạo ra thứ ánh sáng đó, một điều chắc chắn là có một tia sáng mà buổi sáng nay Giang đem đến cho cha con tôi. Bằng chính sự hồn nhiên hoà đồng của cậu, như một sứ giả...”

Niệm cuối cùng chấp nhận nằm xuống hiến trình tiết cho con thèm khát đàn ông của Tăng, để cho Tăng dịu lại mà cư xử thân thiện với dân làng.

“Tôi nằm phơi dưới cơn mưa, đồng loã với đất trời trên người bản lĩnh chuyên chính của Tăng. Tôi nằm đón từng hạt mưa phủ trên cơ thể, cầu mong mưa làm tan đi thứ hương thơm bốc ngùn ngụt trong cơ thể mỏng manh của mình.

Tăng vén rào chui vào vườn. Khẩu súng dài khoác trên vai trở nên vướng víu lạc lõng.

Tôi không biết anh vào vườn. Đám chuồn chuồn bướm bướm và những con sâu khế không đánh động cho tôi biết, bởi trời mưa làm muôn vật mệt mỏi, sợ hãi. Chúng biến đi đâu

hết cả. Tôi mơ màng ngủ. Tôi ngủ trên cỏ, trần truồng, thích thú. Mưa nhẹ đủ làm ướt khoảng đất mọc đầy cỏ màn trầu và lá gai nơi tôi nằm. Tôi không cảm thấy rát và ngứa vì cỏ. Mưa đã làm mềm những ngọn cỏ, làm mềm mặt đất. Những giọt nước trời đem cái ẩm ướt quyến rũ mê hoặc sự yếu đuối. Cái ẩm ướt đồng loã với sự trần tục. Cười nhạo sự thánh thiện. Mon trón và giục giã. Chỉ có lúc này thôi. Lúc này, thời khắc này đừng để tan biến vào hư vô. Dù có bị phanh thây xẻ thịt trong cõi thực.

Trong lúc đang mơ màng không phân định nổi ranh giới ngày đêm, tối sáng, tôi cảm thấy có ai đó chạm tay lên bộ ngực mình. Đôi bàn tay trườn đi trườn lại. Rồi trượt xuống phía dưới. Tôi cảm thấy nghẹt thở. Muốn thoát ra khỏi cái thú ẩm ướt nồng nồng mùi đàn ông. Nhưng tôi lười nhác bỏ mặc thân xác mình trên cỏ. Linh hồn tôi phiêu du khắp kinh thành Huế, tìm kiếm ngôi nhà có một chàng trai thuộc một thế giới khác, thế giới cao hơn cái thế giới của tôi...

Tôi bỏ mặc thân xác tôi dưới mưa và ẩm ướt. Bỏ mặc nó tro ra dưới ánh mắt đã quá no nê thân xác tôi, và bây giờ không chỉ là ánh mắt. Thân xác tôi chào mời. Mọi thứ xung quanh cũng đồng loã như thể đó chính là số mệnh. Không, tôi thực sự biết mình không những đang mơ màng trong một cõi thực thể, mà còn ý thức được sự dâng hiến.

Trong cái thời khắc tiếp theo sự thả nổi buông trôi đó, tôi cảm thấy sức nặng thân thể khác ngoài bản thân mình. Cảm

thấy đau đốn xé lòng. Da thịt tôi dường như bị xé toang, rách nát và thấm đẫm nước mưa ẩm ướt.

Mùi hương của tôi đã bị pha loãng bởi thú mùi đàn ông nặng và trần tục.

Tăng đi khỏi. Để lại tiếng báng súng va vào gốc khế đánh cạch một cái.

Tôi mở mắt tỉnh lại. Cố nhòm dậy mặc quần áo. Cố nhập linh hồn vào thân xác. Một vệt máu tươi bò ra trên đất.

Thân xác tôi đau âm ỉ...

Sau đó là bản thể đi xuống dưới nước, muốn được chìm “Trong nước giá lạnh”, vì giá lạnh là sự trường tồn. Ở đây tôi không muốn dùng từ “tự tử” với một bản thể CHÂN THIÊN MỸ như Niệm. Và sau đó Niệm được cứu bởi một tay thuyền chài, vốn trước là kẻ ăn mày đã từng có duyên gặp nhau, và giờ đây là một kẻ cơ hội.

Trong nước giá lạnh ẩn sâu bên trong là mối tình mơ hồ nhưng sâu sắc giữa 2 nhân vật xưng “tôi” - Giang và Niệm. Giang (nhân vật từ miền Bắc về) là sự kết nối nhân văn giữa 2 miền, 2 luồng tư tưởng, 2 lối sống. Họ không có kết cục là về với nhau. Nhưng họ có nhau suốt cuộc đời trần.

“Mẹ nằm dưới sông với lũ cá. Hôm nọ chị nằm mơ thấy mẹ hiện về hỏi: Niệm ơi, con có hạnh phúc không? Đêm đó chị chạy ra sông, nhấc vó được rất nhiều tôm trứng. Lúc lên bờ, thấy anh Việt đứng chắn ngang lối đi, nhìn chị ghê lắm. Chị

bảo: tránh ra cho tôi đi. Thế là anh ấy tránh sang một bên. Sau này Giang yêu ai, nếu người ta bảo thế, Giang đừng làm như anh Việt...”

3. Tường thành

Hai miền Nam Bắc đã về chung một nhà. Nhưng không ai lường trước được sự ngăn cách về quan điểm tư tưởng và thế giới quan của 2 miền. Gần như có một vạch ngang khá đậm chia cắt vô hình, đã níu kéo sự phát triển của xã hội Việt sau chiến tranh, làm chậm tiến trình hội nhập.

Tiểu thuyết Tường thành phối kết tân hình thức theo lối xoáy tròn ốc và diễn trình hiện đại để trình bày ý tưởng.

Tiểu thuyết Tường thành được nâng lên mức các nhân vật chính phần đa là trí thức nhà báo. Bối cảnh ở Hà Nội. Nhưng vẫn có yếu tố kết nối gắn kết văn hóa và mọi ứng xử giữa 2 miền. Bởi cho đến thời kỳ đổi mới, mọi thứ giữa 2 miền vẫn bị ngăn cách rất sâu sắc. Ngay cả lối làm báo của Sài Gòn cũng khác Hà Nội. Sài Gòn năng động theo kinh tế thị trường. Hà Nội thâm trầm sâu sắc nhưng thiếu yếu tố thị trường. Dân làm báo người Hà Nội vào Nam lập nghiệp bị cô lập. Dân miền Nam ra Hà Nội thường không chịu nổi phải quay về.

“Cho đến thời điểm này, Dương đã đi xa được hai tháng. Chi nhánh của báo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khuyết mất

chức Trưởng đại diện. Trưởng đại diện trước là một người không ưa ông Tống Đình cũng như toàn thể cán bộ phóng viên ở toà soạn Hà Nội.

Thực ra đó là tình trạng chung của tất cả các báo, tạp chí, bán nguyệt san trung ương hay địa phương đóng ở Hà Nội có chi nhánh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c không chịu nhau này không mang tính chất địa phương cục bộ, nhưng nó phản ánh đúng hơi thở cuộc sống ở hai vùng đất khác nhau.

Báo chí ở thành phố Hồ Chí Minh mang hình thức sắc sỡ, nóng nảy, hùng hực sắc màu và những trò giải trí, mang đậm tính cách người Nam bộ ưa nói thẳng nói thật, thậm chí đôi khi trần trụi về mặt đời sống xã hội đến quá tả, trở thành cái bóng ảnh chệch ra ngoài đường ray chính thống.

Báo chí Hà Nội khuôn phép, lạnh lẽo, đạo mạo đến già nua, là nơi phát ngôn của nhiều vị vai vế, cứ đi thẳng tắp trên đường ray, rồi ngã nhào một cái chỉ vì một hòn đá nhỏ kẹt trên ray.

Trộn hai thứ lại thì thành ra một tờ lá cải chính thống.

...Phía nam phía bắc chọi nhau kịch liệt quan điểm về nội dung và cách trình bày, phía nam đề nghị thêm bài về văn hoá văn nghệ thể thao, đòi tư các diễn viên, những người nổi tiếng, ảnh poster thật khêu gợi, màu sắc sắc sỡ, phía bắc - mà đa phần đầu não nằm cả phía này - thì chủ trương các bài xã luận thật kêu, các điều tra cơ bản về tình hình trật tự trị an xã hội, thêm một số tin tức, đường lối chính sách của ngành của

chính phủ, có khi chọn ảnh nghệ thuật đen trắng, mà điều này thì phía nam không thể chấp nhận vì số lượng phát hành báo phía nam cao hơn phía bắc, in ảnh đen trắng không nude thế này chắc chắn thanh niên người già thành phố phía nam nghỉ chơi, nhưng sếp ở phía bắc chỉ thích được trên gặt gù hài lòng, hơn nữa cũng quen nếp thanh lịch, không thể biến một tờ báo có uy tín như thế thành tờ báo bán ảnh, bán đời tư diễn viên, ăn xác thối...”

Toàn bộ cái hay, cái tích cực, tiến bộ lẫn tiêu cực đều dội vào văn học, nhất là văn xuôi Việt Nam được xem như cái nhiệt kế đo lường tâm lý đời sống xã hội. Văn học Việt Nam không thể không ghi nhận, không thể không có sự chuyển dịch trong một xã hội bị phân hóa sâu sắc qua 2 cuộc chiến tranh chống Pháp và chống Mỹ.

4. Ông già bán quán ăn ở Seoul

Trong rất nhiều truyện ngắn và tiểu thuyết hiện đại Việt Nam, có thể nói truyện ngắn Ông già bán quán ăn ở Seoul của tôi (nv VTXH) là truyện ngắn khá hiếm hoi nói về mối quan hệ Việt - Hàn, về hàn gắn vết thương chiến tranh, về lòng nhân đạo của những con người cách xa nhau về địa lí.

Nhân vật ông già được khắc họa qua hình ảnh thật mà tôi có dịp được tiếp xúc khi sang Hàn Quốc theo Chương trình

giao lưu văn hóa của Viện Dịch thuật Hàn Quốc. Toàn bộ câu chuyện kể là có thật và pha thêm sáng tạo của nhân vật.

Hãy trở về khoảnh khắc đau thương xưa của chiến tranh:

“Tiếng súng vang lên khô khốc.

Trong vườn tiêu, một đứa bé gái cởi truồng vừa chạy vừa vấp. Tấm áo xơ rách chỉ còn lông thông như những mảng vá của bầu trời xám xịt.

Những tay súng trong đội quân Pak Chung Hee lấp ló con mắt nhìn tứ phía. Một họng súng rê theo bóng bé gái. Rê thật chậm. Nó vẫn đang chạy. Và khóc. Tiếng khóc nghe như tiếng con mèo con lạc mẹ. Mẹ nó đang nằm trên đất vườn. Miệng há ra.

Dòng máu đỏ chảy ngược vào đất, khô dần...

Rồi tay súng lưỡng lự đứng nhìn theo con bé. Ngay lập tức gã bị đồng đội quật khẩu súng vào cánh tay.

- Bắn đi!

Gã lại đứng thẳng rê họng súng theo lưng con bé con.

Nhưng rồi khẩu súng chúc xuống.

Gã ngồi thụp xuống một mô đất, hơi thở như tắc nghẽn vì khói đạn mù mịt, vì mùi tanh của máu, và vì cái xứ này sao nhiều khói, cay xè đắng ngắt...”

Và nhiều năm sau, người lính ấy trở thành ông già bán quán ăn:

“Ông hỏi bằng thứ tiếng Việt lơ lớ:

- Piệt chừ nam?

- OK!

Cô gật đầu vừa ngạc nhiên vừa vui mừng. Giữa thủ đô Seoul vào cái thời tiết giá lạnh này mà lại có một người nhận ra mình là người Việt Nam thì thật là vui. Ông già chỉ tay vào mình:

- Tôi... Sài Gòn Vũng Tàu...!

Ông chỉ tay lên bức tường đối diện, khoe cái gì đó. Cô nhìn thấy một bức ảnh to treo trang trọng. Một chàng trai khá đẹp trai và hào hoa trong bộ đồ lính. Trái tim chàng trai dù có thể chưa vương bụi trần, nhưng ánh mắt đã u uẩn.

Rồi ông lại hăng hái đứng lên chạy vào bếp...

Ông già đã đón tiếp 2 cô gái Việt nhiệt thành, như cách người ta tìm lại được cố nhân.

“Hình như ông già muốn đưa họ đi chơi quanh thành phố Seoul. Ừ, thì đi. Sợ gì? Từ hôm sang đây đến giờ, chưa có ai thiết kế cho cô một chuyến vòng quanh phố xá bằng xe hơi như thế. Có mấy buổi họp mặt giao lưu thì cũng phải tự đi subway theo lời chỉ dẫn bằng thứ tiếng Anh rất khó nghe của người phụ trách chương trình. Bây giờ tự nhiên có người đưa đi dạo phố bằng xe hơi còn gì bằng. Nhưng liệu ông ta có giỏi cái trò gì không? Hai cô gái Việt không biết tiếng Hàn, giữa vùng đất xa lạ đêm hôm mù trời mù đất thế này. Dù bên ngoài kia, phố xá đèn đóm rợp trời như thành phố đêm New York. Nhưng xe đã nổ máy rồi, có muốn bảo dừng lại cũng không

biết cách từ chối cho lịch sự, ít nhất là phải biết mấy câu tiếng Hàn của người có học. Thôi thì...

Xe cứ đi, đi mãi, ra khỏi Seoul.

Ông già bật đĩa bài hát tiếng Hàn. Giọng một nam ca sĩ trầm hùng. Ông già hát theo. Mỗi khi đi qua một địa danh nào đó, ông dừng hát, giới thiệu. Mà cô và cô bạn có nghe có biết ông nói gì đâu. Nhưng những địa danh đều có ghi rõ trên những tấm bảng treo cao trên mỗi chặng đường. Thế là hai cô cũng hiểu được mình đã đi qua những địa danh nào.

Xe đi cũng phải được đến gần tiếng đồng hồ, cô và bạn mới hiểu ông già đang đưa họ đến biên giới Nam-Bắc Hàn. Họ bắt đầu nhìn thấy những vòng thép gai xoáy đan cài suốt dọc hai bên đường. Phía mặt bên kia hàng rào dây thép gai, phía có dòng sông Hàn chảy êm xuôi là những ngọn đèn pha soi rõ từng ngọn cỏ. Đó là những ngọn đèn bảo vệ. Nếu người từ phía Bắc Triều Tiên có bơi theo dòng sông mà trốn sang Hàn Quốc thì những ngọn đèn lơ lờ kia sẽ là những tên lính canh đầu tiên chặn đứng họ lại. Mà sang để làm gì nhỉ? Người Triều Tiên, cả bắc và nam đều có ý chí quật cường như nhau. Đều không dễ dàng đón chào nhau như cách “Nam Bắc một nhà”.

Ông già vẫn hát theo cái đĩa. Giọng nam ca sĩ ở giai tầng buồn đến não lòng. Sau này cô mới hỏi ra được lời của bài hát. Một bài hát nổi tiếng của một ca sĩ Hàn nổi tiếng và đã chết trẻ:

“Người đi khuất trong sương mờ...”

Cuộc chia ly Nam - Bắc hiện ra trong đêm bằng giai điệu buồn của một người đã khuất, và bằng hình ảnh một tốp lính mặc rằn ri đứng chặn ngang chiếc cầu bắc qua sông. Hình như họ hỏi gì đó, và hình như ông già trả lời rằng xe của họ chỉ đến đúng đầu cầu này thôi để cho mấy cô gái Việt Nam biết cái biên giới quái quỷ này. Và rồi chiếc xe quay lại để đi đến chỗ người Hàn dựng góc biên giới và đài tưởng niệm, chỗ gần ngay cầu và có thể đứng từ đó để nhìn qua biên giới...”

Có lẽ chỉ người Việt và người Hàn, khi đọc những truyện ngắn như truyện Ông già bán quán ăn ở Seoul, mới cảm nhận được hết nỗi đau chia ly do chiến tranh đem lại, sự chia cắt Bắc Nam, nỗi thống khổ của những số phận.

Trong khuôn khổ bài viết này, tôi không thể phân tích nhiều hơn nữa về sự nỗ lực của văn học Việt Nam (và có lẽ cả văn học Hàn Quốc) trong sự nghiệp thống nhất hai miền Nam Bắc.

5. Điểm danh lực lượng

Nếu quan sát kỹ, lịch sử văn chương nước Việt cần ghi nhận sức sáng tạo của các nhà văn sau chiến tranh và thời kỳ đổi mới thật dồi dào. Năm nào lượng tác phẩm mới ra mắt bạn đọc cũng nhiều. Trong những tác phẩm đó, không thiếu tác phẩm hay, đi sát với đời sống xã hội, một đời sống cần sự kết

nối hòa hợp Nam Bắc, thể hiện những tìm tòi và phá cách về hình thức lẫn nội dung.

Sau thành công của những tác giả đặt những viên gạch đầu cho luồng tư duy mới như Nguyễn Khải, Nguyễn Minh Châu, Phùng Quán, Lê Lưu, Ma Văn Kháng, Đỗ Chu... là những thành công về tiểu thuyết viết sâu về chiến tranh và thời kỳ hậu chiến như Chu Lai, Dương Duy Ngũ, Nguyễn Trí Huân, Trung Trung Đĩnh, Nguyễn Khắc Trường, Trần Văn Tuấn, Khuất Quang Thụy, Dương Hương, Văn Lê, Nguyễn Thị Ngọc Hải, Trần Huy Quang, Đào Thắng, Vũ Thị Hồng, Nguyễn Quang Lập, Xuân Đức, Nguyễn Bảo, Trần Văn Tuấn,... và nhiều tác giả khác. Các tác giả Hoàng Quốc Hải, Nguyễn Quang Thân, Nguyễn Xuân Khánh, Bùi Việt Sỹ,... lại đi sâu về đề tài lịch sử, họ đã từng có những tập sách được dư luận chú ý.

Phải thừa nhận rằng, vài mươi năm gần đây nhờ không khí sáng tác có tự do hơn mạnh dạn hơn, có nhiều sự đột phá hơn nên văn xuôi được đánh giá đã tiếp nối được dòng chảy của một số tác phẩm đầy ấn tượng từ sau đổi mới của Lê Lưu, Ma Văn Kháng, Nguyễn Khắc Trường, Dương Hương, Bảo Ninh v.v..

Được mùa nhất của văn xuôi trong sự nỗ lực hòa hợp dân tộc, thống nhất lòng người 2 miền Nam Bắc những thập kỉ qua có lẽ phải kể đến truyện ngắn của các thế hệ tác giả 4x, 5x, 6x. Nhiều tác giả nổi tiếng, sáng tác của họ nếu lựa chọn trong những tác phẩm đã ra đời sẽ có nhiều truyện ngắn có thể đặt

vào hàng truyện ngắn hay của thế giới. Chúng tôi không dám liệt kê, vì nếu liệt kê sẽ là không đầy đủ. Những tác giả nổi trội trong thời kỳ đổi mới như Nguyễn Huy Thiệp, Lê Minh Khuê, Tạ Duy Anh, Y Ban, Hồ Anh Thái, Võ Thị Xuân Hà, Nguyễn Thị Thu Huệ, Phan Thị Vàng Anh, Võ Thị Hảo, Phạm Thị Minh Thư, Ngô Tự Lập, Phạm Ngọc Tiến, Trần Thuỳ Mai, Đỗ Bích Thúy, Nguyễn Ngọc Tư, Bảo Vũ, Đức Ban, Nguyễn Thị Phước, v.v... là những nhà văn thành công ở thể loại này.

Lớp tác giả nổi lên trong các kỳ giải của Hội Nhà văn Việt Nam, các cuộc thi tiểu thuyết của Hội Nhà văn và các cuộc thi khác mà Hội Nhà văn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ngành như Nguyễn Bình Phương, Nguyễn Việt Hà, Nguyễn Bắc Sơn, Sương Nguyệt Minh, Thùy Dương, Bích Ngân, Tô Hải Vân, Thái Bá Lợi, Nguyễn Hiếu, Trần Hương, Phong Điệp, Nguyễn Đình Tú, Nguyễn Danh Lam, Trần Nhã Thụy, Di Li, Nguyễn Xuân Thủy, Nguyễn Ngọc Thuần, Thiên Sơn, Đỗ Tiến Thụy...

6. kết thúc

Phía sau các cây bút nêu tên chưa thật đầy đủ này còn có khá nhiều tác giả trẻ đang chờ người đọc rất nhiều hy vọng.

Sự may mắn là viên ngọc trời ban cho chặng đường đi của một tác giả. Có người xuất hiện đúng thời điểm. Có tác phẩm chạm được tới yêu cầu, thị hiếu văn học của cộng đồng. Có

người lại được lãng-xê quảng bá rất bài bản...

Do nền kinh tế thị trường, do sự cải cách mở cửa trong việc cấp phép xuất bản, nhiều tác phẩm hay ra đời, nhưng cũng lọt không ít những tác phẩm rác. Nhiều giá trị đích thực bị lu mờ, bị san lấp bởi sự hào nhoáng của những giá trị ảo. Nhiều tác giả trẻ tự chạy theo phương cách quảng bá PR bản thân và tác phẩm chưa chín muồi của mình, với nhiều cách như đặt tên tác phẩm câu khách, viết sex một cách thô thiển, phơi bày sự thiếu và yếu về văn hóa đạo đức... Trong khi đó lực lượng viết trưởng thành từ chiến tranh cách mạng, kiên định với lối viết truyền thống của mình, lại chưa hoàn toàn có phương cách tiếp tục thuyết phục độc giả.

Như vậy có thể nói lực lượng viết văn hiện nay khá biến động, không đồng nhất. Nhất là trong tình hình thế giới đang khủng hoảng về kinh tế và khủng hoảng cả về đời sống tâm lý cá nhân.

Ý tưởng để hình thành cấu trúc tác phẩm quyết định sự thành công của tác phẩm, sự thành công này ngày nay được đánh giá thông qua nhiều lăng kính. Trong đó có lăng kính vô cùng quan trọng là sự đón nhận của cộng đồng bạn đọc.

Một số vấn đề về đề tài, bút pháp, hướng tiếp cận của nhà văn, đạo đức nhà văn, mối quan hệ giữa nhà văn và độc giả; Vấn đề thời sự xã hội đang diễn biến hàng ngày tác động trực tiếp vào nhà văn; Vấn đề bút pháp hậu hiện đại, tân hình thức; Vấn đề giữ gìn sự trong sáng của tiếng Việt hay cách tân

từ ngữ; Vấn đề bình đẳng giới, sex trong văn xuôi hiện đại; Vấn đề tâm linh trong cảm thức của người viết... có vai trò rất lớn trong sự kết nối thống nhất lòng người Nam Bắc.

Dẫn luận này chỉ là một liệu pháp gợi ý, đánh động, thật khó có một cái nhìn toàn diện. Không thể kể tên hết các tác phẩm và các tác giả đã cống hiến cho xã hội những giá trị tinh thần lớn. Cũng như góc nhìn nhận đánh giá Sự nỗ lực của văn học Việt Nam trong sự nghiệp thống nhất hai miền Nam Bắc chỉ là phần rất mảnh hẹp.

Rất mong nhận được sự trao đổi thảo luận.

접수일 : 2019. 03. 27 총평일 : 2019. 04. 20 게재확정일 : 2019. 04. 25. 무심사 게재